

말씀, 기도가 되다

시편 119 편과 함께하는 40 일간의 여름 돌파 여정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기간: 8 주간 (월-금, 주 5 일)

4 단계 사용 가이드

- 1 단계 | **오늘의 말씀** — "입술로 세 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대충 읽지 말고,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3 회 이상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영적 유익: 하루 단 4 절입니다. 읽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 캡처나 메모 기능을 이용해 출근길이나 일터에서 수시로 꺼내 보며 내 영혼에 완전히 새겨지도록(암송) 하십시오. 활자가 내 눈을 거쳐 귀로 들릴 때 말씀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 2 단계 | **묵상** — "내 일상의 스토리를 대입하십시오"
 뻘하고 식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직장, 가정, 인간관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볍고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낸 노트입니다.
영적 유익: "아, 맞다! 오늘 내 삶이 그랬지!" 하며 무릎을 치는 순간, 내 일상과 말씀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 3 단계 | **기도의 초점** — "내 염려를 말씀의 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내 감정이나 복잡한 계산을 늘어놓는 기도를 멈추고, 오늘 주신 4 절의 말씀이 지닌 '가장 날카로운 기도의 무기'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타게팅하는 단계입니다.
영적 유익: 중구난방으로 흘러지던 내 생각과 염려를 단숨에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확한 과녁을 향해 기도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 4 단계 | **부르짖는 기도** — "골방에서, 반드시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적혀 있는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읽지 마십시오. 이 기도문은 기도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입니다. 반드시 입술을 열어 크게, 주먹을 쥐고 부르짖으며 선포하십시오.
영적 유익: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짓누르던 무기력과 염려의 결박이 깨어집니다. 가이드된 기도문으로 시작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 5 분, 10 분 더 깊은 기도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주일 예배 2026년 7월 5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 다같이

*성서 교독 / 성서 교독문 53 번(시편 121 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기도하는 그 시간 / 찬송가 364(신) 482(구)

기도 / 박승화 집사

성경 봉독 / 요한복음 15 장 7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말씀, 기도가 되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 찬송가 289(신) 208(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부터 도움 되시고 / 찬송가 71(신) 438(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성도는 그 말씀에 기도로 응답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우리의 염려와 욕심을 반복하게 되지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갑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훈련은 새로운 기도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기도의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을 넘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7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도	박승화(5)	한광기(12)	최명희(19)	최상천(26)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6 일
Day 1 (월)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1-4)

<개역개정>

-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 여호와와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새번역>

-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자체입니다. 길을 잃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삶의 궤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 위에 붙들어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우리삶의 궤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기도의 초점

내 기도의 목적이 세상 조건을 구하는 기복적 수준을 넘어, 삶의 궤도 자체를 주님의 뜻에 맞추는 '방향성 수정'에 집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가 부러워하고 구했던 세상의 허탄한 조건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든 오늘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의 레일 위에 똑바로 서게 하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진짜 복의 자리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베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 6:9-13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며, 우리의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첫 사명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음에도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완고함이 문제였습니다.
-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왕이 있었으며 나라 역시 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영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된 무너짐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인간의 확신이 결국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번영은 결국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어는 절망이 아닙니다. 나무는 베어질지라도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화려한 가지와 무성한 앞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와 상실처럼 보이는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교회의 작아짐과 시대의 쇠퇴조차도 하나님께는 마지막 이야기 아닙니다. 베어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남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8일
Day 3 (수)

일상의 순전함을 지키는 야성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9-12)

<개역개정>

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새번역>

9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10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1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

여기서 '청년'은 나이만을 뜻하지 않아요. 유혹과 타협의 압박이 빗발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일상'을 뜻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비결은 거창한 다짐이 아닙니다. 위태로운 유혹이 혹 밀고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음 창고에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미리 가득 채워 두는 영적 선제공격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

무너지기 쉬운 내 결단력을 의지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영적 야성과 순전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은 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적당히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이 세대 속에서 내 영혼이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창고를 세상의 계산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유혹의 순간, 내 안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9일
Day 4 (목)

돌파를 선포하는 입술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13-16)

<개역개정>

13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새번역>

13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14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큼니다.

15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16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묵상

지갑에 보너스가 들어오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낯선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익보다,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말씀의 가치를 알아챈 '영적 부자'의 여유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묘한 든든함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초점

물질의 결핍이나 환경의 메마름이 내 영혼을 주눅 들게 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을 열어 약속의 말씀을 소리 내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소유의 유무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부요함을 내게 부어주소서. 오늘도 내 입술로 주의 약속을 선포할 때, 모든 염려의 결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10일
Day 5 (금)

영안을 열어달라는 간구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17-20)

<개역개정>

17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19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20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새번역>

17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18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19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20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묵상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늘 낯설고 불안하죠. 게다가 우리 육신의 눈은 날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와 거대한 장벽만 확대해서 보여주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안과 의사이신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감긴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척박한 현실 이면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비로써 말씀을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초점

깜깜한 현실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눈앞의 벽 너머에서 신실하게 구원의 마침표를 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불안하고 막막한 나그네 길 한복판에서 내 영적 시력을 열어 주소서! 현실의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던 주의 기이한 사랑과 완벽한 계획을 똑똑히 바라보며, 오늘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7일
Day 2 (화)

후회를 면케하는 지혜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5-8)

<개역개정>

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8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새번역>

5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6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알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7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8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묵상

"그때 그러지 말 걸..." 살면서 불쑥 찾아오는 이 후회들은 대개 내 감정이나 알팍한 경험을 100% 믿고 내지른 걸음 끝에 남는 얼룩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늘 불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보며 고개 숙이지 않도록 불들어 주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내일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기도의 초점

내 직관이나 눈앞의 이익을 과신하지 않고,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말씀이 지닌 단단한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내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미련하고 불완전한지 고백합니다. 내 성급한 고집으로 행하다가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내 걸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내 매일의 이정표로 삼고 걷게 하옵소서!